

## 1996년 이후 패션 콜렉션에 나타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김 칠 순<sup>†</sup> · 유 희 정<sup>\*</sup>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의류디자인전공,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sup>\*</sup>

### A Case Study on Crossover Coordination Applied in Fashion Collection since 1996

Chil-Soon Kim<sup>†</sup> and Hee-Jung Yoo<sup>\*</sup>

Dept. of Textile and Clothing Design, College of Art · Design, Kyung Hee University

Dept. of Fashion Stylist,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Kyung Hee University<sup>\*</sup>

(2006. 3. 15. 접수 : 2006. 6. 12.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fashion trend and characteristics by finding out the influences of crossover on modern fashion coordination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crossover coordination trend and characteristics.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is study analyzed crossover coordin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expression methodology, periodical changes and designer's tastes that appeared through the collections of the six representative designers from 1996 to 2004.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sis of our sources, we realized that crossover coordination was shown most frequently in 1997 and Christian Dior was the designer who used crossover coordination most frequently. Among lots of crossover coordination cases, most of the cases are the coordination with different materials. In our results, trends of crossover coordination in materials appeared again about every five years cycle. Christian Dior combined different elements through silhouette and material, Dolce & Gabbana combined images and Jean Paul Gaultier combined different elements in the aspect of purpose and wearing configuration.

*Key words: crossover(크로스오버), fashion coordination(패션 코디네이션), silhouettes(실루엣), materials(소재), images(이미지), wearing configuration(착장 방법).*

#### I. 서 론

현대에는 일반 소비자들의 미의식이 향상되고 개인의 개성 지향적인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착용자가 스스로 단품 위주의 패션 아이템들을 신발, 가방 등의 액세서리와 함께 다양하게 조합하여 자신의 이미

지를 연출하는 토탈 코디네이션에 대한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트렌드의 주가가 빨라짐에 따라 유행 선도자이든 추종자이든지 간에 다양한 코디네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개성 추

<sup>†</sup> 교신저자 E-mail : cskim@khu.ac.kr

구'라는 현대 소비자의 성향이 패션 코디네이션을 통한 스타일의 연출과 이미지의 다양성을 더욱 부추기면서 패션 코디네이션의 영역을 더욱더 중요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 중 특히 희귀성을 찾아 색다른 맛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의 이색 취향으로 대조되는 패션 아이템과 이미지의 결합이 개성적인 미의 심볼로서 평가되는 것이 오늘날의 패션이며<sup>1)</sup> 최근에는 디자이너들이 발표하는 컬렉션에서도 독특한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하여 동질적인 것의 조화에 주력하기 보다는 이질적인 것들을 잘 조화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다양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아 많은 호감을 얻었다.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는 현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패션에서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현상을 관찰하고자 본 연구자가 판단하여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연출을 많이 선보인 6개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그들의 컬렉션을 통하여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실루엣의 대조, 이질적 소재의 조합, 상반된 이미지의 조합, 용도 및 착상 방법의 전환이라는 4가지 연출 방법에서 패션 코디네이션에서의 크로스오버를 고찰하고 각 연출 방법에 따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패션 코디네이션에서의 크로스오버를 연구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스타일링 방법과 다음 시즌에 올 수 있는 패션 코디네이션의 경향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디자이너에게 제시하고, 의류 상품 기획에 있어서도 세트류의 정장 외에 다양한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단품 의류의 수량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Crossover Coordination)의 용어 정의

크로스오버는 1950년대의 미국의 음반 산업과 관련하여 쓰이기 시작한 용어로 하나의 장르에서 성공하여 다른 장르로 넘어가는 현상을 의미하였고<sup>2)</sup>, 80년대 이후 고급 음악과 대중 음악의 교류 현상을 지칭하였으나 최근에는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장르간 벽이 없어지고 보편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sup>3)</sup>.

코디네이트란 늘 이상의 것을 조합해서 하나의 감각으로 만드는 것으로 색, 소재, 무늬, 스타일의 균형을 생각해서 조화시키는 것<sup>4)</sup>이며,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은 개인적인 스타일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헤어, 피부색, 메이크업, 액세서리, 핸드백, 신발에 이르기까지 시간, 장소, 상황에 어울리게 조화시켜서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다<sup>5)</sup>. 그러므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란 자기 다른 분위기의 아이템을 코디네이션 하여 착용하는 것<sup>6)</sup>이며, 기존의 규칙처럼 정해진 방법을 무시하고 서로 상반되는 모양이나 이미지를 하나로 결합시키 이질적인 의복의 코디네이트(coordinate) 방법을 말한다.

### 2. 선행연구

#### 1) 패션 코디네이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한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송림, 송명진<sup>7)</sup>은 현대 패션 코디네이션의 창조와 전개 과정을 샤넬 작품을 통하여 실루엣의 활동성과 의류 소품에서의 여성스러움의 조화를 통하여 창조된 이미지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1) 유대순, 조기역 외 2인, *패션 코디네이션의 이해* (서울: 신정, 2001), p. 34.

2) 김미옥, "제3의 흐름. 크로스오버. 퓨전," *음악과 민중* 27권 1호 (2004), pp. 463-465.

3) 양효실,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본 포스트모더니즘 비평", *연생음악연구* 10권 (2003), pp. 135-150.

4) 김철순, 신혜순외 6인, *패션디자인* (서울: 교문사, 2005), p. 207.

5) *Ibid.*

6) 김민정,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7) 이송림, 송명진, "샤넬 이미지를 통한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 *복식* 50권 8호 (2000), pp. 129-147.

고찰하였다. 진경옥<sup>8)</sup>의 경우 존 갈리아노의 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을 에로티시즘으로 표현되는 낭만주의, 매혹적인 역사 문화주의, 해체론 통한 구성주의, 실험적 창조주의로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그의 패션쇼의 패션 코디네이션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의 극대화를 통한 패션 이미지 형성, 대담한 장식, 색채 조화, 실험적 확장으로 코디네이션을 하는 특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조주연<sup>9)</sup>은 키치(kitsch) 문화의 새로운 표현으로 촌스러운 옷을 입은 품위 없는 시골뜨기를 의미하는 차브(chav) 패션에 관한 코디네이션의 특징을 컬러, 소재, 형태, 디테일 등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고, 멀티컬러의 조합과 악센트 배색, 실용적인 소재와 과장된 액세서리 또는 스포티한 모자가 특징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성숙<sup>10)</sup>의 연구에서는 패션 잡지 화보에 나타난 코디네이션에 관하여 분석하였는데 록, 아이템, 색채, 소재, 분양, 디자이너, 모델 등의 8가지 주제로 기획되며 화보의 주제는 TPO를 배경으로 기획 연출되고 모델의 이미지에 의해 연출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헤어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sup>11,12)</sup>가 있었다.

## 2)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김정은<sup>13)</sup>은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크로스오버적인 현상을 성, 지역, 용도, 시대 그리고 감각의 크로스오버로 나누어 패션 디자인적 면에서 크로스오버 현상을 고찰하였다.

김문숙, 김현주<sup>14)</sup>는 하위 문화를 중심으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나타난 크로스오버 패션은 성의 시각적 혼란, 민속적 스타일의 혼합, 리크리에이션(re-creation) 모드의 출현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정홍숙, 김미현<sup>15)</sup>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크로스오

버의 이미지를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을 중심으로 조형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내재된 조형미를 크로스오버의 시간적 관점에서 맞추어 고찰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로부터 전체적인 크로스오버의 출현빈도나 연출 방법적인 면에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에 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크로스오버적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사료되는 1996년 이후의 패션 콜렉션에 나타난 패션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디앤지(D&G),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an Westwood)의 6개의 브랜드를 크로스오버를 가장 많이 연출했던 브랜드라고 본 연구자가 판단하여 선정하였고, 패션 콜렉션 자료를 중심으로 크로스오버 트렌드의 추이를 분석하고, 표현 방법의 실증적 자료를 고찰하였다. 패션 코디네이션은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축소하여 의복아이템의 조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 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콜렉션 자료를 얻기 위하여 VOGUE, ELLE, BAZZAR의 패션 잡지, 인터넷 사이트, 삼성패션연구소 등의 패션 정보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본 연구자 2인이 단독으로 분석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8) 진경옥,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나타난 현대 패션코디네이션 특성," 복식 55권 6호 (2005), pp. 51-66.

9) 조주연, "차브(CHAV) 패션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1권 3호(2005), pp. 178-183.

10) 박성숙,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패션 잡지 화보를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1) 이연영, 이인성, "도탈 코디네이션 요소로서의 헤어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 54권 6호(2004), pp. 15-26.

12) 임희진, "도탈 코디네이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3) 김정은,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4) Moon-Sook Kim and Hycon-Ju Kim,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ossover Expressed in Modern Fashion-Focused on Sub-Cultur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Culture* Vol. 4 No. 2 (2001), pp. 39-47.

15) 정홍숙, 김미현, "현대패션에 표현된 Crossover Image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8권 (2003), pp. 103-114.

### 1. 연도별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출현빈도

〈표 1〉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의 대표적 디자이너 브랜드의 컬렉션에서 나타난 전체 사례 중심으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출현비율을 빈도로 나타낸 것이다. 〈표 1〉에서 연도별 비율이란 연구에 사용된 총 작품 수에 대한 각 연도에 출현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비율이다. 9년 동안 연구에 사용된 총 작품 수 5,911의 9.7%에 해당하는 575 작품이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을 연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크로스오버 출현 비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1997년으로 9년 동안의 크로스오버 연출 작품 수인 575의 17.7%(102회)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연구에 사용된 총 작품수의 13.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이 그 다음해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2000년에 다시 출현비율이 높아졌고 다시 그 다음해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다시 2002년과 2003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1997년<sup>16)</sup>에 크로스오버 현상이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홍콩의 반환으로 세계의 관심이 중국

과 주변 아시아로 집중된 사회 문화적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화려함이 복귀되면서 장식이 주를 이루는 1999년에는 전체 622 작품 중 6.9%만이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을 사용하였고, 2002년과 2003년에 다시 그 출현율이 증가되었다. 2002년은 다문화주의가 패션에 영향을 미쳐 70년대의 히피 스타일이 재해석되어 출현되고 스페인, 인디언, 아프리카, 중동, 터키 등의 민족적인 요소가 가미된 에스닉 트렌드가 하나의 디렉션을 이루고 있었던 시점과 월드컵이 있었던 시점을 감안해 볼 때 서로 다른 문화간의 융합(Fusion)이라는 시대적 트렌드가 크로스오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7)</sup>. 그러나 2003년에는 보헤미안 스타일이 쇠퇴하고 미니멀리즘이 서서히 회귀하는 트렌드가 형성되었고, 2004년에는 편안한 캐주얼 및 현대적 감각의 민티지룩이 트렌드를 이루었는데 본 연구에서 2004년도의 크로스오버의 급격한 감소는 연도별로 크로스 오버의 인(in)과 아웃(out) 패션의 양상이 전체적인 패션 트렌드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 2. 연도별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연출 방법의 변화 고찰

〈그림 1〉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 575회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사례를 연도별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각 연출 방법의 비율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추이 경향을 살펴보면 6개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이질적인 이미지를 조화시키는 것보다는 소재와 착용 방법의 전환을 통하여 크로스 오버를 연출하였고 실루엣의 대조를 이용한 경우는 가장 낮은 퍼센트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원만한 변화곡선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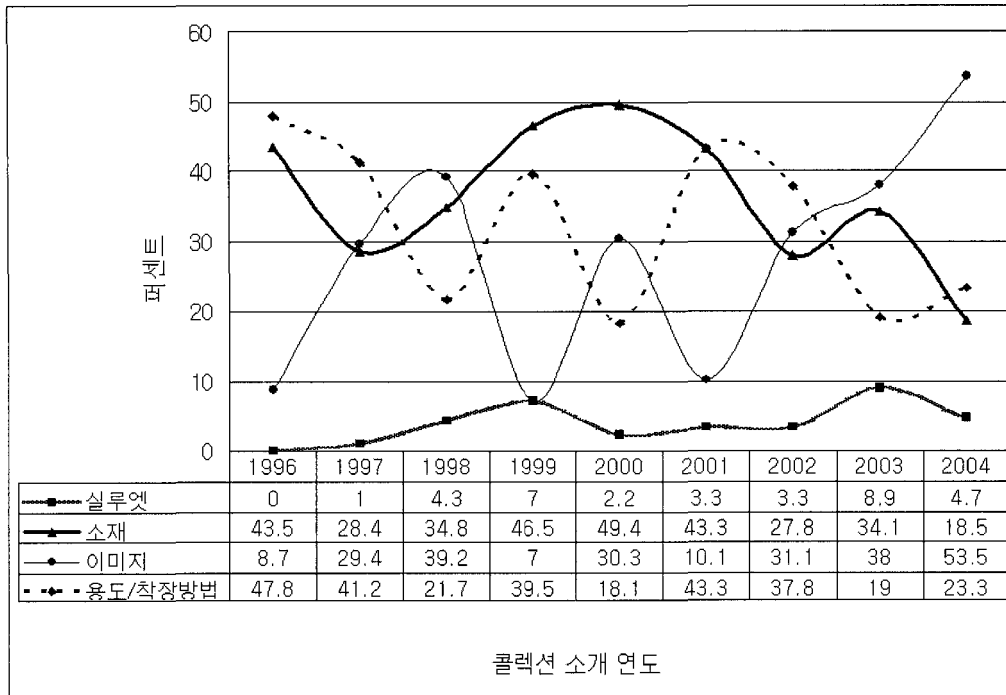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소재의 사용으로 크로스오버의 출현율이 가장 높았던 1997년에는 주기에서 낮은 점을 차지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사용율이 증대되다가 2000년에 최대점을 형성하고 다시 감소 경향을 나타내어 2002에서 급격히 감소한 후 2004년에 최저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주기의 폭이 대략 5년 정도로 다른 연출 방법보다 주기 폭이 넓은 편이다. 작장

〈표 1〉 연도별 6개 디자이너 브랜드의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연출 빈도 분석 결과

컬렉션 연도	총 작품수	크로스오버 빈도 (%): {크로스오버/575}×100	연도별 비율 (%): {크로스오버빈도/총작품수}×100
1996	552	23( 4.0)	4.2
1997	734	102(17.7)	13.9
1998	565	46( 8.0)	8.1
1999	622	43( 7.5)	6.9
2000	730	89(15.5)	12.2
2001	672	60(10.4)	8.9
2002	734	90(15.7)	12.3
2003	629	79(13.7)	12.6
2004	663	43( 7.5)	6.5
총 계	5,911	575(100 )	9.7

16) 김시연, 박길순, "1990년대 후반의 컬렉션에 나타난 세계화 현상", 복식문화연구 9권 6호 (2001), p. 886.

17) 이봉덕,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 28.



〈그림 1〉 연도별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전체 사례에 관한 연출 방법의 변화 추이 조사 결과.

방법의 전환은 주기가 단지 1년~2년에 해당되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미지의 사용 주기 역시 그 폭은 매우 좁지만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급상승하여 최고치(53.5%)를 보였다.

각 연도별 전체 크로스오버 사례에 관한 연출 방법의 퍼센트를 살펴보면 1996년과 1997년에는 용도/착장 방법의 전환, 1998년에는 이질적인 이미지를 이용,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소재 이용, 2002년에는 용도/착장 방법의 전환, 2003년~2004년에는 이미지의 이용이 높은 퍼센트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부터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연도마다 서로 다른 상하의 코디 방법으로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연출 방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기(cycle)를 가지고 다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한 학자는 패션 트렌드가 약 30년 주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18)</sup>.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각 브랜드의 볼렉션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트렌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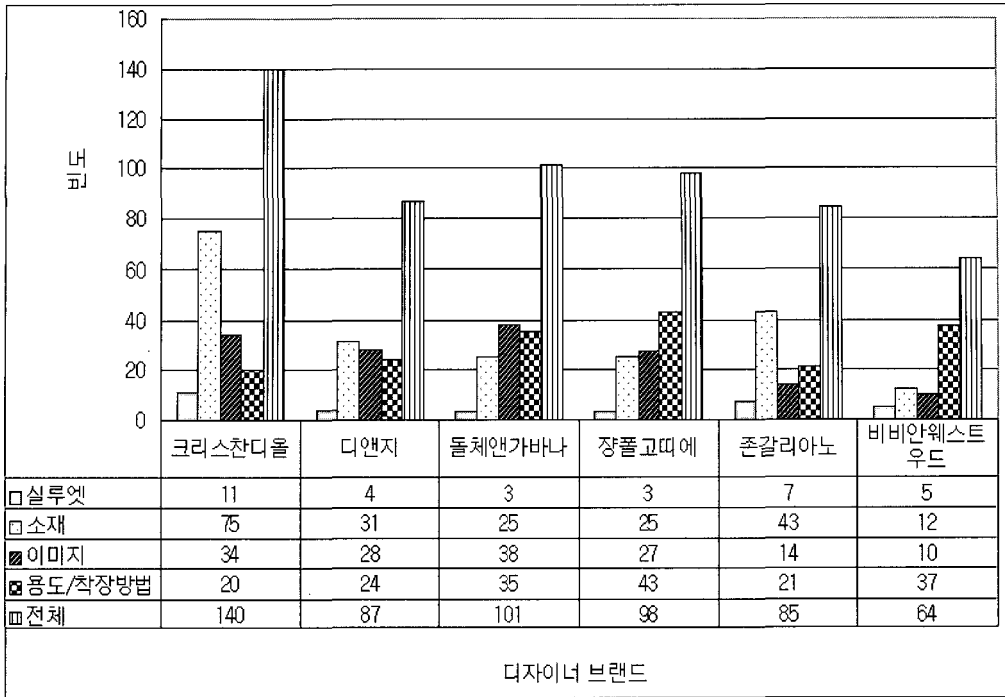
예측함으로써 구매력이 강한 소비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상품을 기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크로스오버의 연도별 연출 방법의 변화 곡선을 고찰하는 것은 다음 시즌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예를 들어 이미지는 하향세를, 소재는 다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의의가 있다고 본다.

### 3. 디자이너 브랜드별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연출 방법

〈그림 2〉는 1996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여섯 개의 디자이너 브랜드별 크로스오버 연출 방법에 관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크리스찬 디올이 가장 높은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연출빈도를 보여주었고 둘째 앤 가바나, 장 폴 고티에가 그 다음 순위를 이었다. 각 브랜드별 연출 방법을 살펴보면 소재를 더 많이 사용한 디자이너 브

18) Oelkers, D. B., *Fashion Marketing* (Tomson : South Western, 2004).



〈그림 2〉 1996~2004년도 디자이너 브랜드별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연출 방법 분석.

랜드는 크리스찬 디올, 존 갈리아노, 디앤지로 확인되었고 용도 및 착장 방법 전환의 사용은 장 폴 고티에와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돌체 앤 가바나는 이미지와 착장 방법의 전환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돌체 앤 가바나, 장 폴 고티에, 존 갈리아노는 20세기 후반에 코브셋 룩으로 신선한 충격을 시도했던 디자이너이고,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핑크 패션의 창시자로 핑크 룩에 브루조아적인 특성을 절충하고자 했던 디자이너로 유명한데 이 기간 동안에는 특히 속옷과 겉옷의 매치를 통하여 원래의 용도를 전환하는 패션을 많이 선보여준 대표적 디자이너라 할 수 있다.

정홍숙, 김미현<sup>19)</sup>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 속에 나타난 버슬 스타일에서 크로스오버를 시간의 형태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와 같이 디자이너별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을 고찰한 결과 1996년 이후부터 200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크리스찬 디올은 실루엣과 소재를 통하여, 돌

체 앤 가바나는 이미지, 장 폴 고티에와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용도와 착장 방법의 전환을 많이 연출했던 디자이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디자이너 브랜드는 서로 다른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으며 패션 컬렉션에서 서로 다른 연출 방법을 사용하여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을 형성하였다.

#### 4.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연출 방법의 사례조사 결과

##### 1) 실루엣의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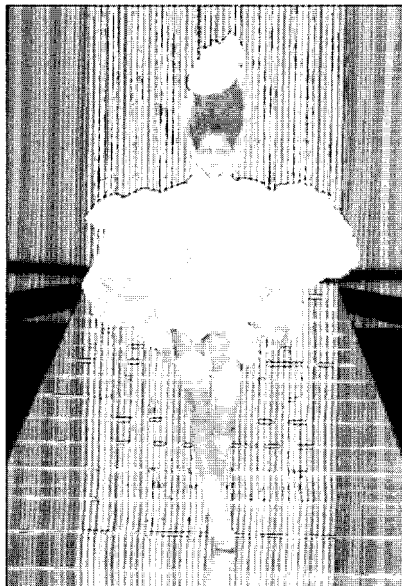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상반신과 하반신의 실루엣을 과장이나 축소를 통하여 왜곡하고 서로 대조시킴으로써 신선한 느낌의 조형미를 창출하여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을 이룰 수 있다.

〈그림 3〉은 실루엣의 대조에 관한 사례로 부피감이 느껴지는 오버 사이즈의 모피 코트와 짧은 미니 스커트를 조화시킨 2002년 F/W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

19) 정홍숙, 김미현, *Op. cit.*



〈그림 3〉 Christian Dior (2002, F/W).  
(<http://www.firstview.com>)



〈그림 4〉 John Galliano (2004, S/S).  
(<http://www.firstview.com>)

으로 별키한 상반신과 슬림한 하반신의 의복 스타일의 조화이다.

〈그림 4〉는 존 갈리아노의 작품으로 슬리브를 과장시킨 반면 다리 무위볼 가장 슬림하게 보이게 하는 스타킹만을 코디네이션 하여 오버사이즈의 극대화를 이루었다.

## 2) 이질적 소재의 조합

서로 다른 두께, 두명도, 광택, 패턴을 이용하여 조합시켜서 크로스오버를 연출할 수 있다. 홈스펀, 코듀로이, 모피, 트워드와 같은 두꺼운 소재와 시폰 또는 오간자, 보일, 룬, 머슬린과 같은 얇은 소재<sup>20)</sup>의 조합이나 실크, 사틴이나 코팅된 가죽과 같은 광택이 있는 소재와 쏘오겟이나 시폰과 같은 광택이 없는 소재의 조화도 상하 대미를 이루어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자연적인 꽃이나 식물 등의 패턴과 지오메트릭 패턴과의 조합으로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을 연출할 수 있다.

〈그림 5〉는 이질적 소재를 조화시켜 흥미로운 결과를 자아내는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사례이다. 모피 코트에 얇고 부드러운 시폰 소재의 스커트를 조화시켜 계절을 모호화 하는 방법이나 〈그림 6〉은 의도적으로 속이 비치는 원피스에 비치지 않는 소재의 자켓을 걸쳐 입어 어색함을 즐기는 방법이다.

〈그림 7〉은 화이트 컬러의 퍼 소재와 실버컬러의 상의를 조화시켜 넷한 질감과 광택 사이에서 오는 텍스처어의 이질적 소재의 조화의 예이며, 〈그림 8〉은 내츄럴한 이미지의 플로랄 프린트의 상의에 기하학적인 형태의 패턴이 들어간 하의를 코디네이션한 사례로 자연미와 인공미 사이의 부조화를 세련되게 표현한 작품이다.

## 3) 상반된 이미지의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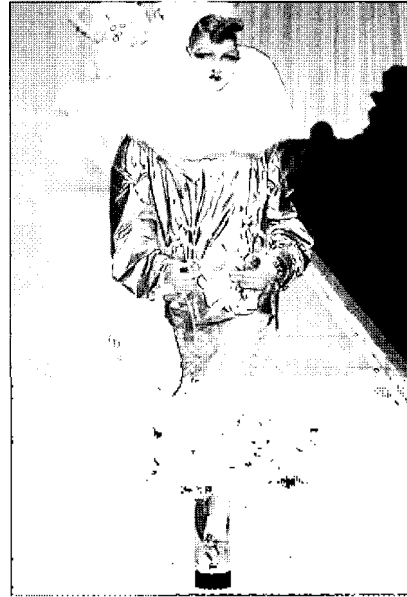
페미닌한 이미지와 매니쉬한 이미지의 이질적 조합<sup>21)</sup>, 즉 레이스 소재의 스커트와 남성적 이미지의 테일러드 자켓의 코디네이션 또는 엘레강스한 자켓과 캐주얼한 청바지의 조화로 상반된 이미지를 새로

20) 김유애, 김혜경 외 7인, *패션소재기학과 정보* (서울: 교문사, 2000), p.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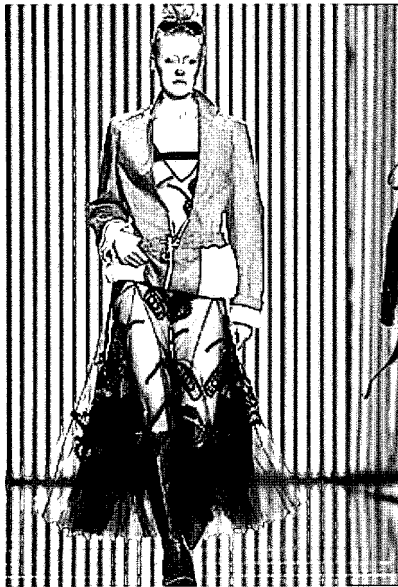
21) 김유진, 이경희, "상반되는 의복이미지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8호(1997), p. 129.



〈그림 5〉 Dolce & Gabbana (2004, F/W).  
(<http://www.firstview.com>)



〈그림 7〉 Christian Dior (2004, F/W).  
(<http://www.firstview.com>)



〈그림 6〉 John Galliano (2001, F/W).  
(<http://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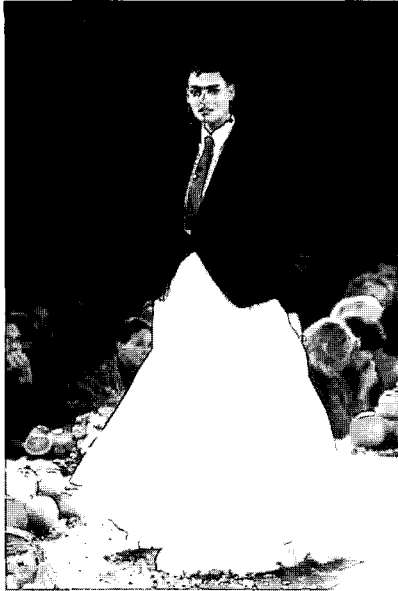
〈그림 8〉 Dolce & Gabbana (2001, F/W).  
(<http://www.firstview.com>)

의와 하의를 서로 상반적인 이미지로 조화시켜 복합적인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림 9〉는 장 폴 고퍼에의 작품으로 테일러드 자

운 이미지로 전환하여 신선함을 줄 수 있다. 디자이너의 취향과 트렌드의 영향으로 로맨틱, 스포티, 클래식, 에스닉, 매니쉬 등 의복 이미지가 다양하나 상





〈그림 9〉 Jean Paul Gaultier (1998, S/S).  
(<http://www.firstview.com>)



〈그림 10〉 Dolce & Gabbana (2004, F/W).  
(<http://www.style.com>)

켓과 넥타이의 댄디한 이미지와 스커트의 페미닌한 이미지의 조화로부터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엔드로지너스 룩이다. 여성복에서 남성적 이미지의 상의 착용은 남성의 힘 추구 또는 페미니즘의 표현이고 하의의 볼륨스커트는 은폐에서 오는 에로티시즘의 표현이며 이러한 크로스오버를 통하여 현대인의 다면적인 감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10〉에서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동경으로부터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여 서로 다른 문화로부터 이국적인 요소들을 의복에 응용한 사례인데 동양적인 색상, 패턴 스타일이 서양적인 요소와 공존하여 양면성을 나타냄으로써 독특한 현대 패션을 창출한다.

#### 4) 용도와 착장 방법의 전환

용도 및 착장 방법을 전환하여 속옷을 겉옷으로 입는다던지 겉옷에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경우, 또는 상의의 디자인적 요소를 하의로 전환한다던지, 의복의 정면과 후면을 바꾸어 앞트인이 뒤로 가게 착용하여 독특하고 아방가르드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내페이즈망(depaysment)의 표현 기법으로 원래의 위치를 변경하여 의외성의 변경에서 오

는 충격을 주는 방법이다<sup>22)</sup>.

〈그림 11〉은 기존의 착장 스타일이 바뀐 겉옷 위



〈그림 11〉 John Galliano (2000, F/W).  
(<http://www.firstview.com>)

22)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표현주의에 근거한 양면가치를 중심으로*, (서울: 경춘사, 2002), p. 357.



〈그림 12〉 John Galiano (2000, F/W).  
(<http://www.firstview.com>)



〈그림 13〉 Jean Paul Gaultier (2002, F/W).  
(<http://www.firstview.com>)

에 브레이저를 덧입은 해체와 파괴를 통한 걸출주의적 결합의 모습이고, 〈그림 12〉는 상의에 입어야 하는 스웨터 디자인을 하의에 응용하여 착장함으로써

정통 패션의 착장을 파괴한 비정통 패션의 모습이다. 〈그림 13〉도 셔츠의 앞뒤를 바꾸어 착장하는 전통적인 착장 방법으로부터 탈피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사례로 유미러스한 표현 방법 중 하나이다. 매우 엄기적인 룩으로 처음에는 충격을 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는 것이 곧 패션의 특성이다.

## V. 결 론

패션 코디네이션은 1960년대 이후 영 패션의 대두와 함께 여성복이 다양화, 세분화되어지면서 도입되기 시작하여 의복의 캐주얼화가 부각되는 1970년대에 본격화되었으며 현대에는 자신만의 개성 있는 패션을 연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의복에서 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등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는 토탈 코디네이션 시대로 발전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패션에서는 기존의 방법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색다른 자신만의 패션 연출을 위해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이미지나 아이템의 조합에 관심을 가지면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6개 디자이너 브랜드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연출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고, 각 디자이너 브랜드의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 연출 방법을 고찰하였으며, 그 사례를 실루엣, 소재, 이미지, 용도와 착장 방법의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1996년부터 2004년까지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가장 많이 출현한 해는 1997년이며 디자이너 브랜드 중 크리스찬 디올에 의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네 가지 유형 중에서는 소재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용도와 착장 방법, 이미지 그리고 실루엣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연출 방법의 정도는 다르며 트렌드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연출 방법의 트렌드는 이질적 소재를 조화시키는 경우는 5년의 주기를 나타내었고 용도와 착장 방법의 전환은 주기가 1년 ~2년 정도로 짧았으며 실루엣의 대조를 통한 경

우가 가장 저조한 빈도와 완만한 변화 곡선을 보였다.

셋째, 크리스찬 디올은 실루엣과 소재를 통하여, 돌체 앤 가바나는 이미지, 장 폴 고티에와 비비안 웨스트우드느 용도와 착상 방법의 전환에 의한 신선한 충격을 주는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을 선보인 대표적 디자이너라 할 수 있으며, 각 디자이너 브랜드의 디자인 컨셉과 취향에 의해서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아이디어를 풀어내는 표현주의적 표현 기법이 다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난 다양한 스타일링 방법을 제시하고 앞으로 의 상품기획시 디자인 창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6년에는 소재에 의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컬렉션에서 뿐만 아니라 스트리트 패션에서도 많이 선보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단품 아이템의 개발과 그 상품들을 이용한 신선한 코디네이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그동안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실루엣, 소재, 이미지, 용도와 착상 방법을 이용한 방법 외에 시도되어 지지 않았던 영역간의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본 연구가 미래의 패션 트렌드 예측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현재의 크로스오버적인 트렌드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다음 시즌의 트렌드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각 디자이너 브랜드의 예술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노탈 코디네이션의 관점을 의류 중심으로 보았고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의 다양한 방법 중 의복과 의복 사이의 코디네이션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므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액세서리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과 의복 사이에서의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도 흥미로울 것 같다. 특정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그리고 의상과의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나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크로

스오버 코디네이션의 연구 등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시도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미옥 (2004). "제3의 흐름. 크로스오버. 퓨전." *음악과 민속* 27권 1호.
- 김민정 (1995).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서연, 박길순 (2001). "1990년대 후반의 컬렉션에 나타난 세계화 현상." *복식문화연구* 9권 제6호.
- 김유진, 이경희 (1997). "상반되는 의복이미지의 조합에 따른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권 8호.
- 김은애, 김혜경 외 7인 (2000). *패션소재기획과 정보*. 서울: 교문사.
- 김정은 (1995).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철순, 신혜순 외 6인 (2005). *패션디자인*. 서울: 교문사.
- 박성숙 (2002).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패션 삼지 화보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효실 (2003).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본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연세음악연구* 10권.
- 유태순, 조기여 외 2인 (2001). *패션 코디네이션의 이해*. 서울: 신정.
- 이봉덕 (2002).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림, 송명걸 (2000). "샤넬이미지를 통한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 *복식* 50권 8호.
- 이언영, 이인성 (2004). "노탈 코디네이션 요소로서의 헤어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 54권 6호.
- 임희진 (2000). "노탈 코디네이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 김미현 (2003). "현대패션에 표현된 Crossover Image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8권.
- 조주연 (2005). "차브(CHAV)패션의 코디네이션에 관

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1권 3호.  
 진경옥 (2005).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나타난 현대패  
 션코디네이션 특성.” *복식* 55권 6호.  
 채금석(2002). *현대복식미학-표현주의에 근거한 양면  
 가치를 중심으로*. 서울: 경춘사.  
 Kim, Moon-Sook and Hyeon-Ju Kim (2001).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ossover Expressed in  
 Modern Fashion-Focused on Sub-Cultur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Culture* Vol. 4

No. 2.  
 Oelkers. D. B (2004). *Fashion Marketing*. Tomson  
 South Western.  
<http://www.firstview.com>  
<http://www.firstviewkorea.com>  
<http://www.samsungdesign.net>  
<http://www.skyand.com>  
<http://www.style.com>